

# 여름철 이상저온 벼농사 비상

도열병 방제에 60억 긴급지원

**계**속되는 여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와 병해충 발생이 겹쳐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이후 계속된 저온과 잦은 강우로 벼의 생육이 늦어지고 도열병 발생도 지난해보다 3배나 늘어나고 있는데다 8,9월의 기상전망도 기온이 회복된다는 반가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8월7일 각 시도 농림수산국장과 농촌진흥원장 등 관계관을 소집, 저온에 따른 벼농사 관리 및 병충해 방제대책을 긴급 시달했다.

이 자리에서 許信行 농림수산부장관은 『최근 저온이 계속되고 있고 도열병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출수기 이삭도열병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전 농산관계 공무원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계속된 저온으로 고냉지 및 산간지 등에서는 이미 ▲영화수 감소 ▲출수지연 ▲수정장해 ▲불임률의 증가등 냉해피해 양상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그 감소추정량이 8월5일 현재 약 6%(약 2백만석, 4천 3백억원) 수준이며 앞으로 10일 후에는 약 8%, 20일 후에는 약 13%, 그리고 한달후인 9월초순에는 약22% 수준까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벼일에 붙어있던 도열병 포자들이 바람에 날려 이삭도열병으로 변질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전국에 긴급방제령을 내리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지시하고 60억원을 긴급지원, 이삭도열병 방제농약을 농가에 지원키로 하는 한편 지역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지출장 독리반을 편성하는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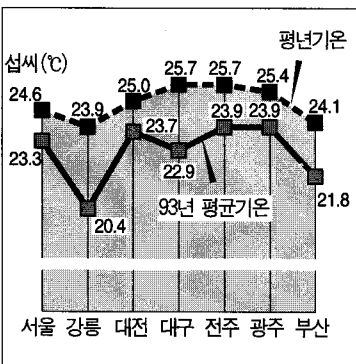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냉해 피해를 크게 입은 지난 1980년도의 경우에도 7월부

터 9월상순까지 저온이 지속되어 총 78만8천ha가 냉해피해를 입었고 그중 39만7천ha가 도열병 피해를 입어 무려 1천4백만석이나 쌀생산이 감소했다.

이날 관계관들은 저온과 일조부족, 잦은 강우 등으로 발생하는 냉해피해는 출수후 20일, 40일경 거의 완숙단계에서 판별되므로 현재와 같이 외양상 생육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농가가 방심하게 되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될 뿐 아니라 이삭도열병도 한번 걸리면 치유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지역별로 출수기를 전후하여 이삭도열병 농약을 1~2차례 살포할 것과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저온에 대비하여 ▲돌림 물고랑 설치 ▲15cm 정도 논물깊이 대기 ▲인산·가리비료 웃거름주기등을 철저히 이행해주도록 농가에 당부했다. **농업정보**

7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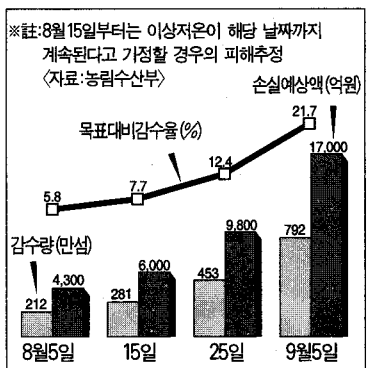
〈8월9일 농민신문〉

7월중 이상저온 발생지역



〈8월9일 농민신문〉

벼 냉해피해 예상



〈8월8일 동아일보〉